

“호남에 진 빛, 실천으로 갚겠다”...여당, 약속 정치 화답

정청래, 광주·전남 돌며 감사 인사
기초·광역의원들, “지역 발전 노력”
시민 “공약 이행 약속 지켜야” 기대
평가 “풀뿌리 민심 실천 이어지길”

“호남의 열렬한 지지, 정말 감사합니
다.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을 맞
아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정국 구상에 집
중할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정치인들은
아파트 단지부터 교회, 전통시장 등을 누
비며 ‘여당 정치’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호남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연
휴 기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참모
들과 국정 운영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내
각 인선과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점검했
다. 6일에는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 통화를 진행한 데 이어, G7 정상회의
의 참석을 확정했다. 이들 뒤인 8일에는 우
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새 정부 조직
을 채워갔다.
이 대통령이 국정 설계에 집중하는 등

안,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감사의 현
장’을 찾았다.
정청래 골목골목 선대위 광주·전남위원

장은 지난 5일부터 나흘간 나주, 여수, 순
천, 광주 등지를 돌며 당선 인사를 전했
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하는 대

신 정치적 짝꿍인 내가 감사 인사를 드리
러 왔다”며 “호남에서 몰아준 압도적 지지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은 이번 대선에서 각각
83.9%, 83.6%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8
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
령 득표율 또한 광주 84.77%, 전남
85.87%를 얻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
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강했던 광주 봉선2동, 나주시 빛가람동,
광양시 금호동 등지에서는 국민의힘 득표
율이 크게 줄었다.

지역 기초·광역의원들도 주민들과의 접
촉에 나섰다.

김영순 광주 북구의원은 “대선 유세 때
찾았던 거리로 다시 나가 주말 이틀간 아
침 저녁으로 시민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
투표를 호소했던 길목에 다시 서니 감회
가 새로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 친
화적인 모습에 시민들도 감동했다는 이야
기를 자주 들었다. 산악회 등 단체 모임에
서도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많이 전했
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이, 대통령실 1·2차 인선... 무안 출신 김용범 정책실장

정무수석 우상호·홍보 이규연·민정 오광수
경제 하준경·재정기획 류덕현·사회 문진영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
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전북 남원 태생으
로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
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
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
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
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
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
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
표 등을 역임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김용범 우상호 이규연 오광수 하준경 류덕현 문진영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
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
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
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
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전라남도 무
안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통
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
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
신이다.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또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
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전라북도 출신 하
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하 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
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
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수석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대통령
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
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제18회 명품 영산강 자전거길에서 힐링 라이딩 하세요! 영산강 자전거대행진

전남일보사는 광주·전남 시도민을 비롯해 전 국민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게 될 ‘제18회 영산강 자전거대행진’을
오는 6월 28일 개최합니다.

코스는 승촌보~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구간을 왕복합니다.

참가자는 자전거와 헬멧 등 개인 장비를 지참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호남의 명품 자전거길을 달리는 자전거대행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6월 28일 (토) 오전 9시 집결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구간** 승촌보 문화관 뒤 광장 ~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24Km)
- 신청기간** 2025년 6월 5일 (목) ~ 6월 23일 (월)
- 인원** 선착순 150명
- 주최 주관** 全南日報 전일엔컬스
- 후원** 전라남도
- 참가비** 무료 (기념품 제공)
- 문의/신청** 062-519-0730 (www.jnilbo.com)